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6년 포어 §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고후 5:18-21, 창 33:1-4)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지혜로의 초대

(약 1:5-8)

The Invitation of Wisdom

(James 1:5-8)

야고보 사도는 지혜를 다음의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James, the Apostle explains wisdom in two ways as follows.

1. 고난이 유익한 것임을 알아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지금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온전히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받아 누리실 하나님의 복이 바로 그 고난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에는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험을 인내함으로 잘 통과하면 고귀한 승리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며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1. It is to rejoice and give thanks through suffering by knowing the value of suffering.

There is no one who is in trouble among us. If you are in trouble, you have to be happy because God's blessings that you receive and enjoy are just hidden in that suffering. There is a purpose in the test that we go through. Therefore, if we pass the test by perseverance, the fruit of noble victory should be born. Like this, James explained this as wisdom.

2. 기도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히 얻는 것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약 1:5).

"If any of you lacks wisdom, he should ask God, who gives generously to all without finding fault, it will be given to him" (James 1:5).

① 지혜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는 것입니다.

지혜는 배워서 아는 것도, 열심히 봉사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1) We can get wisdom by praying to God

We cannot get wisdom by learning, knowing, and serving others faithfully. But when we come before God and sincerely pray to God, he gives us wisdom.

② 나에게 지혜가 부족한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지혜가 부족한 줄 알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과 이해와 포용이 있습니다.

2) We must know that we lack wisdom

Upon knowing that we lack wisdom, we can pray to God asking for wisdom. There is peace in family, at work, and in church where wise people are. There is joy, healing, recovery, understanding, and embracement.

③ 지혜를 구하면 누구든지 풍성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는 누구든지 얻을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나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넘치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 하셨습니다(약 1:5).

3) Whoever looks for wisdom gets it richly

Anyone can get wisdom, if you can pray before God to ask for it, he will give to all of them generously, and will not reproach them. He promised that he would give them wisdom to the brim (James 1:5).

④ 지혜를 구할 때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면 믿고 요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4) When you ask for wisdom, you must ask with faith, and not with doubt

James, the Apostle says, "When you ask, you must believe, and not doubt." Jesus emphasizes over and over how important faith is when we pray to God. When you believe it is God's will, you must believe him and not be shaken.

히브리서 기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없다"고 증거 합니다. 의심하며 기도하는 자를 야고보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The writer of Hebrews proved, "Without faith, we cannot please God." Paul said to those who pray with doubt, 'those who have two faces are not clean.'

My beloved Christians,

Wisdom can be gained through the perseverance that we are now undergoing, and it can be known that perseverance is complete and ready to be enough to live a wantless lif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란 지금 현재 겪는 고난을 통해 인내를 얻게 되고, 인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을 아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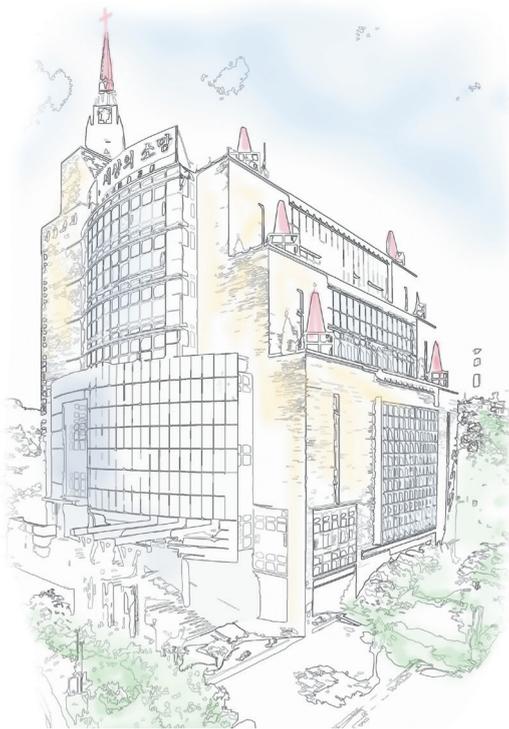
Then, when we pray for perseverance, we must ask only with faith and do not doubt at all.

그리고 지혜를 위해 기도할 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면서 마음이 이리저리 요동쳐서는 안 됩니다.

When you pray to God, you should not be shaken in mind here and there.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승리하시는 지혜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By being full of God's wisdom, I earnestly pray that all of you will be the wise people who take a victory for God's glor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제49회 (재)한국기독교학술원 학술공개세미나

주제 : 인권과 통일 / 5월 23일 (월) 오후 2시
장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

한국기독교학술원(원장 : 이종윤 목사)은 제49회 학술공개세미나를 「인권과 통일」이라는 주제로 갖는다. 자유·정의·평화에 기반을 둔 「복음화된 통일조국건설」을 한반도 통일 이념으로 삼고 기도하고 추진하는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를 성취시킬 수 있는지를 찾는 학술세미나가 되기 위해 크리스찬 통일교수협의회가 창설되어 통일신학 정립,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고 인권문제를 성경적·신학적·역사적 연구 토론하는 전문가들을 동력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발제자는 박명수 박사(현, 서울신대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장), 논찬은 김일수 박사(고려대 명예교수)로 선다.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여 통일 비전도 받으며 토론에 참여하여 한국교회에 비전 제시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제 39학기 서울성경대학 및 2016 전반기 열린프로그램 수료자 명단

· 살름경로대학 : 63명

강서분 강애자 공진문 국산옥 길경자 김금자1 김길자 김만순 김미순 김영정 김영철 김희경 김희옥1 민정이 박두영 박경희 박동희 박석현 박양인 박정숙3 박춘자 박혜숙 백명자1 백영숙 사희현 소정부 손태순 송옥혜 신갑순 신종건 안병숙 안창휘 양옥자 양호일 여옥기 유순임 이경자 이동인 이덕빈 이부자 이순자 이영윤 이점화 이춘자 이현숙3 인천희 전인화 전행자 정봉금 정빈도 정애신 정임숙 정정숙 정희화 최성연 최성의 최옥경 최죽희 최창화 최향봉 한수명 황성연 황일운

· 선교대학 : 7명

박명석 박미경5 오민정 이영미3 장석남 정치는 조원영

· 교사 양성반 : 7명

고은선 김성호3 민의랑 박미영3 서문호 정재옥 지강희

· 교구일꾼양성반 : 6명

김미선4 김애리1 손경화 신소영 장효정 추현숙

· 바울옥중서신 : 11명

강석조 강순애 권영월 김성혜2 남궁규 박영신2 손경숙1 손용문 유선희 이강진1 이계홍

· 성경통독반 : 19명

김선호1 김소영12 김영애 김은희7 노은주 박영민1 박정희 배선령 송정윤1 양금숙 안미애 양미경 윤영희2 임선영 정혜영3 최금호 최미경 함수경1 홍윤실

· 서울음악교실 : 21명

강순애 김경미 김수정6 김세용1 김영민5 김장섭 김장열 남현주 문정원1 박동수3 서찬주 송미애 유지영2 윤민자 이형남 장능재 장유강 정재옥 진종석 최정분 최종욱

· 어머니 힐링 스쿨 : 56명

김교은 김숙영2 강정화 고영순 고은하 김영숙11 김지연 김유리1 김정순6 김경애2 김미경 김태옥 김영남1 김윤영 노애리 박계진 박은주3 박수옥 박수강 박현영 박찬미 신아령 서단옥 석상화 송명원 송지윤 우스라 이주연9 이영일 유기순 유정화 이주영8 이수정7 이선희7 안미애 이희정5 이현숙 윤치선 이정하2 조제을 조미정 조상희 정윤용 정재옥 장형심 조정옥 진현정 최정숙4 최경선 한은경 한효숙 황혜진2 홍선미 홍영희2 최재련 최수향

· 비블리오바이블스쿨(BBS) : 26명

김수연11 김중현3 김 울 김하윤 김하진 김효은 강정화 박서희 신 민 신민석 신아령 서주희 손예은 송채원 이은유 이예은1 유하연 윤영숙 안성희 지서영 조 희 조상희 조현정 최경선 최재련 함세라

· 아기학교 : 33명

권수정 김나현2 김다인 김민준 김서은 김예은6 김이환 김정원 김주하 노진우1 박세연1 박시현 백하은 설금숙 송미령 신 별 신 술 신주현 심지우 윤주아 이은미 이지아3 이현순1 임선애 임영숙 장효선 전경화 조동희1 조진영 차영립 최성경 최유진 최원형1

· 출애굽기 : 11명

강석조 고은하 김미숙7 김성자1 김성혜2 안미애 양금숙 유미숙2 이상호2 이영숙4 임선영

· 전도학교 : 21명

김종애1 김성자1 김은연 김수원 김민정13 권택숙 남경혜 이영란3 이옥수 이진리 이성희4 오민정1 임미경1 임낙식 유영희1 윤정희 조성배 정을순 최주혜 채명숙 최형숙

교구별 체육대회



9교구 체육대회



3교구 체육대회



3교구 체육대회

이종윤 원로 목사의 크리스찬의 신앙곡선

한국교회 성장과 그 문제점

(속 4:6)

1. 교회 성장이란 무엇인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속에서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으니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라”(고전 3:6)고 하였다. 비록 사람이 전도하고 가르치고 봉사하였지만 교회를 성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 성장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되 사람에게도 맡겨진 책임이 있다.

교회 성장에는 내적 성장(Internal Growth), 양적 성장(Expansion Growth), 연장 성장(Extension Growth)이 있다. 내적 성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은혜 안에서 긴밀해지는 것을 말한다. 성도의 대인(對神) 관계가 깊어지면 성도들 간의 대인 관계도 점차로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그러면 질적으로 우수한

교회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은,

(1)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있는 교회(행 2:43, 4:29, 골 1:24)

(2)위선이 저주를 받는 순결한 교회(행 5:1-11)

(3)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고 의로우신 주로 고백하는 바른 신학을 가진 교회(행 3:14)

(4)교회의 연합을 위해 모든 성도들이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교회(고전 12:14)

(5)견고한 마음과 그리스도와 사랑과 약속의 소망을 가진 우주적인 교회(행 11:23)이다

반면 양적 성장은 몸되신 교회의 복음 전도를 통한 수적 성장을 말한다.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양적 부수에 크게 관심을 가지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은 병행함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기도 하였다.

연장성장은 타지역 또는 타문화권에 개척교회를 세우거나 또는 선교활동을 포함한 복음 확장 운동을 말한다.

2. 한국 교회는 과연 성장하고 있는가

현대 한국 사회는 ‘개발’과 ‘근대화’라는 두 단어로 특징지을 수 있다. 지난 수 십년간 한국 사회는 국가적 차원에서 급진적 개발과 급격한 경제성장이 추진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민의 심층 구조에는 기계화, 공업화, 도시화, 대형화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남으로 이같은 기치관은 교회에까지 과급되었다.

이러한 경제 성장원리는 교회 지도자들의 뇌리에까지 은연 중에 뿌리를 내림으로써 가시적이고 양적인 팽창 일반도의 성장만을 강조한 나머지 현대 한국교회는 경제성장과 비례하여 외형적 성장만을 강조한 나머지 Robert Bellah가 지적한 바와 같이 ‘팅비고 깨진 조개껍질과 같이 그 원래의 특성을 상실한’ 병든 교회로 진단이 내려진채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의 한국 교회가 소위 성장세를 달리다가 그 부작용으로 생긴 Growing pain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겸손히 한국 교회의 일면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 주 계속)

항존직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잠정 연기

항존직 (집사, 권사)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교회 앞에 공지되고 투표를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된 시점에서 갑자기 공동의회를 잠정 연기하게 됨으로 성도님들에게 혼란을 드리게 되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질서를 위하여 올바른 항존직 분자의 선출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공동의회를 연기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그 이유를 간단히 알려드립니다.

공동의회를 개최하기 하루 전날인 토요일 오후 시간에 소위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밴드에 밴드의 운영자인듯 한 "하늘떡장수"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한 사실과 투표와 관련하여 밴드 가입 권유 등 불법 선거 운동의 정황이 드러나 주일 아침 당회원 기도회 시간에 긴급하게 이 문제가 제기 되었고 대다수 당회원들이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선거의 진행을 위하여 공동의회를 잠정 연기하기로 뜻을 모아 결의하였습니다.

이런 결의에는 서로 생각을 달리했던 다른 당회원들도 찬성하여 결의된 사항임을 아울러 알려드리며 우리 교회의 질서가 빨리 회복되어 교회의 참된 일꾼들을 선출하는 공동의회가 다시금 개최되기를 소망합니다.

- 당 회

하늘떡장수

오늘은 주의 날을 준비하는 안식일입니다. 안식후 첫날을 주께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날을 지킵니다. 특히 내일 안수집사 권사님들 선출하는 날입니다. 한사람 한사람 떨어져야 될 사람이 없는데 교회 법상 더 많은 사람을 올려서 우리로 투표를 하게 합니다. 우선은 내일 우리 밴친님들 모두 투표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뽑아주고 싶은분들 뽑아주시고 남는 공란은분 우리 밴친님들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 사역 잘하시기를 우리가 기도로 도와야 됩니다. 내가 뽑았으니 내가 기도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밴친님들 명단은 밴드 멤버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어려우시면 개인적으로 공동리더들에게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① 누구를 뽑아야 할지 알려 주세요 305 읽음 오후 7:40

② 리더님들께 갠 카톡이나 문자로 여쭙보심이~~~~~!

③ 모두들 하늘떡장수님의 먼저올리신 글들을 다시 올리시며,깊은 묵상과 기도로 선택을~~~~~!!

25 오전

71 읽음 오전 9:55

70 읽음 오전 9:55

문제가 된 sns

① ②공동의회 전에 올린 '하늘떡장수'의 글과 반응

③ 지난 주일 공동의회 잠정연기를 결의한 임시 당회 후 올린 '하늘떡장수'의 글

홍해작전을 준비하며

진정한 부흥을 꿈꾸며



이우진 집사 (홍해작전 참모부 차장)

서울교회 홍해작전은 개개인 성도들의 흥해가 갈라지고 건너게 되는 기적의 기도 작전으로써, 지난 1992년부터 시작된 25년의 역사를 가진 서울교회의 자랑이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2016 홍해작전 참모부(참모장 양준경 장로)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위한 홍해작전 개전에 즈음하여 승전을 위한 행진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6 홍해작전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를 기

도로써 극복한 모세의 위대한 신앙을 본받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합심하여 조국의 안전, 민족교회와 서울교회의 회복, 개인과 가정의 기도제 목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새벽을 깨움으로써 우리 앞에 놓여있는 흥해를 믿음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말씀과 기도운동"이다. 따라서 그 어느때 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가득찬 은혜의 시간으로 준비되어지고 이러함이 홍해작전 기간동안 계속 이어짐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체험하시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2016 홍해작전 기간 동안 전교인이 참여하는 특별행사로 사행시(홍해작전), 오행시(진정한 부흥, RENEW), 은혜 간증문 쓰기를 시행하며, 교회학교

에서는 백일장(산문, 사행시, 오행시), 그림 그리기 등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홍해작전 기간동안 금요기도회는 개인적으로 하며, 주일에는 5시30분에 새벽기도회로 모입니다.

또한, 홍해작전 기간동안 매일 아침 8층 만나홀에서는 교우들간 승전을 위한 간단한 식탁 교제가 있습니다.

이번 2016 홍해작전 기간 동안 우리 모두 새벽을 가르며 달려 나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받으므로 국가와 교회, 개인의 흥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시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어머니 힐링 스쿨을 마치며

소명



송지윤 집사 (11교구)

소명이란 주제 아래 시작된 힐링스쿨, 뜻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새로운 삶으로 부르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0주간의 프로그램내용을 보고 듣고 싶었지만 맡은 일이 많아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10-20대 자녀를 둔 어머니라고 하셔서 다락방 식구들과 같이 듣게 되었습니다. 서로 강의를 듣고 나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들으면 너무나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 공부에만 매진하는 현실속에서 신앙의 비전을 심어주기란 쉽지 않았는데 신동렬목사님의 특강을 듣고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놓으신 질서를 발견하는 것이 공부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은혜로와 사춘기와 동생들 돌보느라 힘든 큰 딸이지만 누구를 부르든 늘 네~엄마!! 왜요? 웃는 얼굴로 바로 달려와 뭐 도와드려요? 하는 딸이 기특하기만 했습니다.

그런 정연이에게 특강에 대해 이야기하니 너무나 경이롭다는 눈빛으로 엄마의 힐링스쿨 강의내용을

들어주고 공유할 때 참으로 듣기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락방식구들과 강의를 듣고 자녀를 위한 기도회를 할때면 눈물이 나와 정말 힐링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또한 양세라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정연이와 정서가 아비가일처럼 지혜롭고 현명한 여인들로 자라나길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정균이에게는 좀 더 인내하며 사랑을 주어야겠다는 다짐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힘든 고난속에서도 기쁨이 함께 공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힐링스쿨하는 동안 언니가 세례를 받을 때 교회 오지 않는 오빠가 저보다 일찍 와 언니뒤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시는 분들조차 같이 감동하시며 은혜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주 한 주 주님이 부여하시는 은혜속에 있을 때 중강이였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맛있는 음식들을 리더분들이 아침일찍 준비해 주셔서 행복한 마음으로 먹게 되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리더분들, 양세라목사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힐링스쿨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 가을 학기에는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의 물결속으로 빠지지 않으실래요?!



교회주변 불법주차 금지

강남구청은 종교시설 주변 불법 주차로 인한 민원의 증가로 교회주변의 불법 주·정차 견인에 관한 공문을 보내왔다.

성도들은 교회 주변에 이열주차, 보도주차, 횡단보도, 교차로 등에 주차를 금하기 바란다.

B.M.W. 운동



교구별 체육대회

5월 28일(토) 14교구 - 양재천

등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23일(월) 한국기독교학술원 49회 학술 공개세미나를 개최한다. 26일(목) 준부사관수련회 주제설교를 한다. 27일(금) 한국군선교연합회이사회에 참석한다. 28일(토) 한국개혁신학회 20주년기념 40차 학술심포지움 및 기념대회 축사를 한다.

■ 주일식당봉사 : 엘리야 선교회(5.22) 바울 선교회(5.29)

■ 금주의 식사제공 : 이종욱 집사 이재경 집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교회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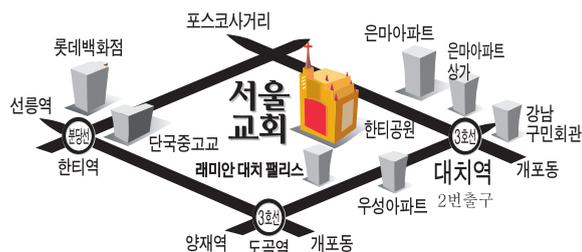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항존직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통하여 신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조속히 세워질 수 있도록
2. 교구별 체육대회를 통해 다락방과 교구와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3. 5월 29일(주) 드리는 남선교회 헌신예배를 통하여 우리교회 남선교회가 부흥하고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 구분 | 시 간 | 장 소 | |
|-----------|-------------------|------------|-------------------|
| 주 일 예 배 | I 부 예 배 | 오전 9시 | 본 당 II, III, IV 층 |
| |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 오전 11시 20분 | |
| | III 부 예 배 | 오후 2시 | |
| | 찬 양 예 배 | 오후 5시 | |
| | English Worship | 오전 11시 15분 | |
| | 젊은이 예배 | 오후 2시 | |
| 수 요 예 배 | I 부 예 배 | 오전 11시 | 본 당 II, III 층 |
| | II 부 예 배 | 오후 7시 | |
| 새 벽 예 배 | 오전 5시 30분(매일) | 본 당 II 층 | |
| 금 요 기 도 회 | 오후 8시 | | |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